

SDGs 달성을 위한 민간재원 동원 관련 최근 논의

1. 배경 및 현황

□ (배경) 2015년 전 세계 193개국이 UN 지속가능개발목표(SDGs)에 합의

- 이 중 지속가능한 목표 17*(글로벌 파트너십)은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

* SDG 17(세부지표 17.17) : Encourage and promote effective public, public-private and civil partnerships, building on the experience and resourcing strategies of partnerships

-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이행을 위한 연평균 파이낸싱 갭*(3.7조 달러, 2020년)은 전 세계 금융자산(382조 달러, 2020년) 대비 약 1%에 불과하나, ODA(1,789억 달러, 2021년)와 비교하면 상당히 큰 규모 → 파이낸싱 갭 축소에 있어 민간부문의 재원이 주요한 역할을 할 필요

* SDG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공급 가능한 자원 간 차이 / 출처 : OECD (2020)

- 다자간 개발금융기관(MDFIs), 공여국 개발금융기관(DFIs)은 민간재원 동원을 위해 관련 프로젝트, 포트폴리오 및 SDG 시장 개발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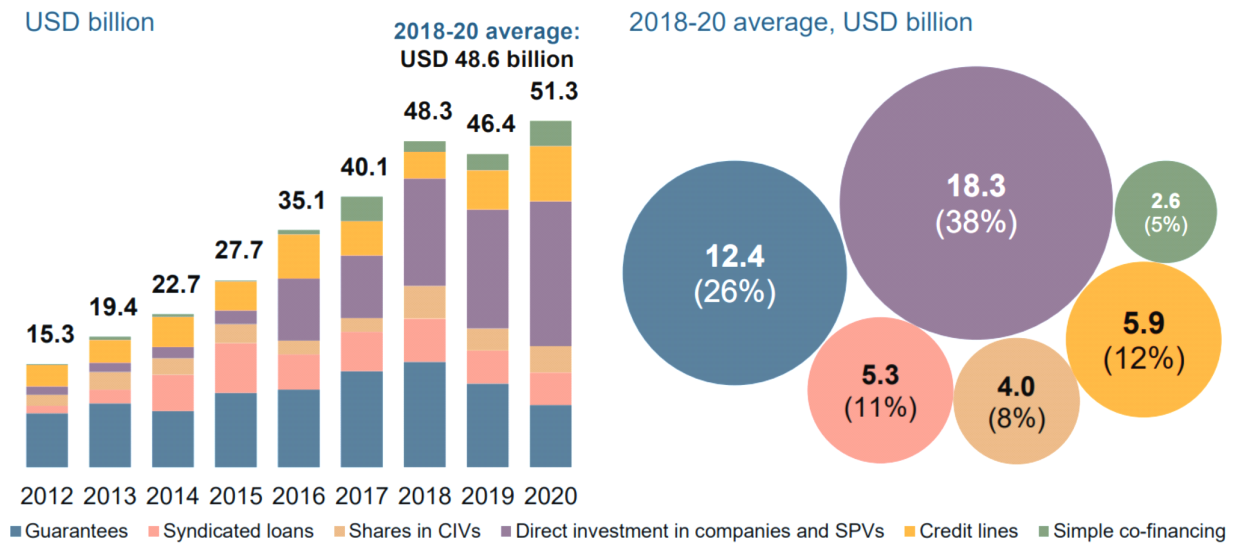
- 기업 직접금융, 투자위험 경감지원, 민간금융기관 앞 크레딧라인 제공
- 위험(risk)과 개발효과(development effect)을 모두 고려하는 만큼 비교적 다양한 금융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으며, 접근성 높은 구조 및 금융수단을 확보하고 있어 민간부문이 쉽게 협력할 수 있음

□ (현황) 민간재원 동원 규모는 2012년 153억 달러에서 2020년 513억 달러로 꾸준히 성장하였으나,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개도국 재원수요가 급증, 연평균 SDG 파이낸싱 갭은 오히려 증가함¹⁾

- 물론, SDGs 전부를 민간재원을 통해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나, 코로나19를 거치며 민간재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 사실

1) 2019년 2.5조 달러 → 2020년 3.7조 달러

[그림 1] 2012~20년 연도·수단별 민간재원 동원 규모



출처: OECD (2022b)

- 또한, 민간재원 동원이 가장 필요한 국가(저소득국·최빈국)와 분야(사회적 부문)에 가장 적은 규모의 민간재원이 동원되는 모순이 발생 중
 - (소득그룹별) 2018~19년 저소득국(LICs) 및 최빈국(LDCs) 앞으로는 47억 달러(12%)의 민간재원이 동원된 반면, 중고소득국(UMICs) 앞으로는 195억 달러(48%)에 달하는 민간재원이 동원됨
 - (부문별) 동 기간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에는 37억 달러(8%)의 민간재원이 동원된 반면,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에는 323억 달러(67%)의 민간재원이 동원됨
- MDFIs 및 DFIs는 이윤을 추구하는 ‘전통적 사업 모델’과 수익성이 낮은 지역·부문의 ‘지속가능개발 모델’ 간의 이해상충에 직면함에 따라, 비교적 부유한 개발도상국과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한 (commercially-viable) 부문에 민간재원 동원을 집중해왔음
 - 이에 SDGs 달성을 위한 민간재원 동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, 공여국은 MDFIs 및 DFIs에 정치적·재정적 유인을 제공하고, 유인 제공 절차 확립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재편 필요

2. 민간재원 동원 저해요인

□ 혼합금융의 공통된 정의 부재

- 혼합금융에 대한 OECD DAC의 정의와 DFI의 정의가 상이하여, 투명성 및 비교가능성, 중요자료 생산 역량 등이 저해됨 → 국제적으로 합의된 일관적인 정의 필요

< OECD DAC와 DFI의 ‘혼합금융’ 정의 >

구분	영문명	정의	강조
OECD DAC	blended finance	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추가적 재원동원을 목적으로 한 개발재원의 전략적 활용	기관의 책 무(mandate), 혼합금융의 추가성
DFI	concessional blended finance	민간부문 시장 발전, SDGs 달성 및 민간지원 동원을 목적으로, 회원국(또는 제3자)의 양허성 재원을 DFI의 개발재원 및 상업자금과 결합하는 것	혼합금융의 양허성

자료 : 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(2019); Spratt, S. et al. (2021); OECD (2022a)

□ 위험 및 수익, 개발 임팩트의 투명성 부족

- 투명하고 개방적인 ODA와는 대조적으로, 혼합금융 거래의 위험 및 수익 관련 자료는 기밀성(confidentiality)을 근거로 공개되지 않음
 - 이에 투자위험 및 기회가 불분명하여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진입이 어려움. 특히, 거래 실적이 비교적 부족한 최빈국과 사회적 부문에 대하여 민간재원 동원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음
- 또한, 다수의 이니셔티브 및 프레임워크, 측정 방식 등이 혼재되는 현 상황에서 개발 임팩트 측정 및 관리에 더 높은 투명성이 요구됨

□ MDFIs 및 DFIs의 민간재원 동원 유인 부족

- MDFIs 및 DFIs는 SDGs 달성을 위한 **지속가능한 임팩트**와 위험관리 및 신용도 유지를 위한 **재정적 수익**을 모두 실현해야 함 → **이해상충**
 - 고수익 저위험 기조에서는 불가피하게 저위험 국가·분야에 투자가 편중되는 문제 →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위험 임팩트 투자를 감행하는 경우, 민간재원 동원을 위해 최초 손실 자본(first-loss capital)을 투입함에 따라 재무상태 악화 → 자본위험관리 및 신용도 유지를 위해 재무부 통제 실시 → 고수익 저위험 기조로 복귀

3. 개선방안

□ 혼합금융의 표준 정의

- ❶ 민간부문 및 여타 시장 참여자들의 혼선 방지, ❷ SDGs 달성을 위해 필요한 시장 조성 협력, ❸ 혼합금융에 대한 불투명성 비판 해소를 위해 표준적인 정의 확립 必

□ 공동 데이터베이스 조성 및 개발 임팩트 측정 및 관리 근거 마련

- (공동 데이터베이스) 2009년 유럽투자은행(EIB)와 국제금융공사(IFC)가 출범한 **GEMs Risk Database Consortium**이 대표 사례 → 현재 세계 24개 MDFIs·DFIs가 글로벌 신흥시장 거래 관련 신용위험 자료 공유
 - 개도국 투자위험과 관련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나, 회원기관이 아니면 신용위험 자료의 세부내역에 접근할 수 없는 점은 한계
- (개발 임팩트 측정 및 관리) 2021년 5월 OECD와 UNDP가 ‘지속가능발전 재원을 위한 임팩트 스탠다드(Impact Standards for Fin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)’를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 투자의 임팩트 측정 및 관리 진전 기대 → 혼합금융 재원 관련 회원국의 **공적책임무성(public accountability)** 제고 노력 必

□ MDFIs 및 DFIs의 위험부담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재편

- 기존 위험-수익 모델에서 위험-수익-개발 임팩트 모델로 신속하게 전환
→ 고위험 저수익이라도 높은 개발 임팩트가 기대되는 사업추진 독려
- 이를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높은 수익성을 요구받는 MDFIs 및 DFIs에 대한 시스템 전환(systemic change)이 수반될 필요

붙임 : OECD-UNDP 지속가능발전 재원을 위한 임팩트 기준

작성 : 심사역 정 동 진, djjung@koreaexim.go.kr

참고문헌

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(2019). 혼합금융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개선방안. 외교부.

한국수출입은행 (2017). SDGs 달성을 위한 민간재원 동원: 혼합금융 지원수단 및 구조화 기법. EDCF 이슈페이퍼 6(1). 한국수출입은행.

EIB (2022). GEMs Risk Database Consortium 공식 홈페이지.

<https://www.gemsriskdatabase.org/> [접속일 : 2022년 10월 12일]

OECD (2020). Global Outlook on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1: A New Way to Invest for People and Planet. OECD Publishing.

OECD (2022a). Making Private Finance Work for the SDGs. OECD Development Co-operation Directorate.

OECD (2022b). In 2018-20, close to USD 50 billion per year on average were mobilised from the private sector for development : Zoom in on the latest data (June 2022). OECD Development Co-operation Directorate.

https://www.tossd.org/docs/Infographic_Mobilised_Private_Finance_TOSSD.pdf [접속일 : 2022년 10월 6일]

OECD, UNDP (2021). OECD-UNDP Impact Standards For Fin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. OECD Publishing.

Spratt, S., Lawlor, E. & Coppens, V. (2021). Core concepts in blended finance: Assessment of uses and implications for evaluation. OECD Development Co-operation Working Papers No 90, OECD Publishing.

1	임팩트 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SDG와 관련, 개발 임팩트 목적을 설정하고 특히, “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” 유의 • 목적은 공여자 및 파트너국가의 우선정책과 부합하되, 임팩트 중심의 투자전략에 구현
2	임팩트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파트너는 사업 설계 및 관리시 개발 임팩트, 인권 보호, SDG, ESG를 반영하는 임팩트 관리 접근법 채택
3	투명성 및 책무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파트너는 공여자 및 수혜자 앞 ①공공재원 지원 민간사업의 개발 임팩트 및 SDG 기여도를 관리하고 측정하는 방안, ②개발 임팩트를 관리 방법 및 거버넌스에 반영하는 방안을 공개
4	거버넌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파트너의 SDG에 대한 기여 공약을 거버넌스 실무 및 제도에 반영